

세계산업역학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pidemiology in Occupational Health, EPICOH) 소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김 인 아

세계산업역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Epidemiology in Occupational Health, EPICOH)는 세계산업보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Epidemiology in Occupational Health, ICOH)의 과학분과(Scientific Committee) 중 하나로 역학을 주요 관심분야로 한다.

EPICOH는 매년 국제 학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 영국 옥스포드에서 30회 학회를 개최하였다.

EPICOH는 내가 전공의 시절 처음 가 본 국제학회였다. 당시 호주의 멜번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 한국사람은 내가 유일했다. 처음 가 본 국제학회에서 잘 하지도 못 하는 영어로 더듬거리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 다양한 연구 주제들과 방식이 흥미진진했다. 그 때 이후 EPICOH는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챙겨가는 학회가 되었다.

올해에는 역학자, 산업의학전문의, 산업

위생전문가, 통계학자, 정책담당자, 보건학과 전공 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500여개의 논문을 발표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과학에 있어서의 불확정성과 위험에 대한 소통을 주제로 시작된 기초발제는 파킨슨병의 환경적 위험요인에 대한 고찰, 참전 군인들의 정신건강 문제, 방사선에 의한 심혈관계 질환, 작업복귀, 베이시안 분석, 기후 변화에 대한 주제로 이어졌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들이 다양한 만큼 기초 발제로 선택된 주제들도 정말 다양했다.

이번 산업역학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느낀 것은 방법론에 대한 고민과 직업성 또는 환경성 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가였다.

먼저 방법론적 측면에 있어서는 노출 수준이 낮은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노출과 질병 사이의 시간적 차이에 대한 고려, 베이시안 분석법의 적용, 생애주기 접근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이 많았다.

한국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과거 노출에 대한 접근의 문제, 노출수준이 낮은 경우의 건강영향 문제 등에 대한 역학적 접근과 통계학적 분석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사실 베이지안 분석은 데이터를 분석할 때 관측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분석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넣어서 분석을 하는 최근의 분석 경향 중에 하나이다.

통계학적으로는 확률에 대한 논리적 접근 방식 자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학회가 구성되어 있을 정도라고 한다. 최근 이러한 방식이 산업역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작한 만큼 이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직업성 또는 환경성 암에 대한 대규모의 다기관, 다국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유럽의 경우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매우 다양한 암 종류에 대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직업성 암과 환경성 암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정책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질병 부담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교대근무와 유방암의 관련성에 대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교대근무의 사회적 부담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인상 깊었다. 유럽의 상황과는 또 다른 동아시아에서 이런 다기관, 다국가 연구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석방법이나 주제의 측면에서 산업역학에 대한 고민은 한국이나 해외나 모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접근 방식의 과감함과 정책적 속도는 한국보다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역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과학적 인프라가 확충된 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학문인지라 학회 참석자의 대부분이 서구 사회인 이유도 있겠지만 한국의 흐름이 약간 늦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았다.

역학은 질병의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산업보건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직업성 질환이나 근로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산업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고전적인 접근 방식 이외에 현재의 상태를 고려한 다양한 역학적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많은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산업역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길 바란다. ☺